

# 기호학적 지시의 지각론적 확장\*

황영삼\*\*

## 【 차 례 】

- I. 서론
- II. 에코의 지시 이론
- III. 지각적 확장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검토

### 국문초록

지시 문제는 기호학, 언어 철학을 관통하는 문제이며 의미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지시 문제는 언어, 기호 또는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오는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하는 원리와 방식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지시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지시 기호와 지시 대상 간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호 기능론에 정초한 기능 생성론에서 제시하는 지시 이론을 고찰함으로써 기호학적 지시 문제에 대한 연구 방향을 찾는다. 연구 결과 기호 생성론의 지시 이론은 기호학적 지시를 구현하는 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부에는 기호학적 지시 이론과 실천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열쇠어 : 지시 이론, 기호 생성론, 에코의 지시 이론, 지각과 기호, 건축기호학, 도시기호학

\* 본 연구는 2014년 국립인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국립인천대학교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축학부 교수

## I. 서론

지시한다는 것은 가리킨다는 것이다. 기호학에서 가리킨다는 것은 기호가 ‘무엇을 가리키는가’라는 대상의 존재와 부재 또는 상태에 관한 문제,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가리키는가’라는 의미 해석적 문제와 관련된다. 기호학적 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가 기호학의 고유한 특성들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제시된다면 기호 모델의 지시 범위와 기호작용의 범위가 풍부해질 것이다.

첫째 기호학에서는 모든 관계를 내재적 랑그 관계로 전환하여 바라보기 때문에 대상과 의미에 대한 지시도 랑그 체계의 한계와 가능성 내에서 이루어진다. 소쉬르 계열 기호학에서 이것에 해당되는 것은 엘름슬레우의 기호 기능론이 있다. 둘째 기호학에서의 언어 및 비언어 기호의 범위는 언어학의 언어 기호에 비하여 더 포괄적이다. 지각 기호를 포괄하기 위한 방법이 학제적 학문으로서의 기호학에게는 확립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지시의 문제는 의미의 문제와 함께 다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기호학은 의미에 관한 학문인 바 지각의 문제는 의미론적 틀에 포함되어 함께 처리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기호학의 특성을 종합한다면 기호학에서의 지시의 문제는 사물에 대한 기호의 내재적 관계 체계 내에서 사물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이것은 사물의 참된 이해를 구성하는 양면으로서의 의미와 지시의 문제가 곧 의미의 이해 방식에 대한 문제이고 또 지시 대상에 따른 의미의 상황적 재해석이 기도 하다는 것을 말한다.

소쉬르 계열 기호학에서 지시 문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이론으로 엘름슬레우의 기호 기능론과 그것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에코의 기호 생성론이 있다. 기호 기능론은 표현과 내용 간 상호 관계에서 기호 기능이 발생한다는 이론으로 이 상호 관계가 곧 지시와 의미 간 상호 관계를 바라보는 해석의 틀을 제공한다. 에코의 기호 생성론은 기호 기능론에

뿌리를 둔 것으로 발화체로서의 언어와 지각물의 생성에 관한 이론이다. 이들 기호학 이론들이 지시 문제 처리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향후 지시 이론의 발전의 기초를 위해 유효할 것이다..

한편 언어학적 지시 이론은 언어 체계의 기반 위에서 얻어질 수 있는 문화와 사고의 보편성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것은 문법과 텍스트 구조라는 언어적 장치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표현과 추론적 도구로서의 문화와 사고의 보편성을 말한다. 반면에 지시 대상과 지시 과정이 언어 체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한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기호학적 지시 이론에서 말하는 지각적, 연상적 인지 작용과 비교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첫째는 기호학적 지시의 의미를 고찰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지각적 요소가 기호작용에 개입하는 방식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예코의 기호 생성론에 나오는 지시 이론을 원리적으로 검토하였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지시 이론이라는 현대 기호학의 추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기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오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원리와 방식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지시 문제에 대한 연구 역사를 보면 지시 문제는 기호학과 언어 철학을 관통하는 문제라는 것이 나타난다. 지시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한 가운데에 언어와 기호가 있는 것이다. 지시의 문제는 프레게(Gottlob Frege)의 ‘On Sense and Reference’(1892)에서 제시한 기술적 지시이론(description theory of reference)에서 최초로 등장하였다. 이 이론은 ‘의의적 의미(sense)가 지시(reference)를 결정한다’라는 명제에 뿌리를 둔 것으로,<sup>16)</sup> 지시한다는 것은 언어의 지시적 표현(명제)과 그 표현이 나타내는 대상 사이에 유지되는 관계를 뜻하고 이름은 지시하는 대상을 대신하는 것이

---

16) meaning과 sense가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각각 ‘의미’와 ‘의의적 의미’로, 별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공히 ‘의미’로 번역함.

라고 하였다.<sup>17)</sup> 프레게 이래로 지시에 대한 문제는 광범위하게 논의가 전개되어 온 의미론의 일부로 나타난다. 대체적으로 언어 철학에서는 일반적으로 meaning은 sense와 reference의 양면을 가진 것으로 통용된다.<sup>18)</sup> 즉 한 사물의 의미(meaning)의 문제는 무엇에 대해서(reference)의 의미가 무엇이라는(sense)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의미론과 지시 이론들의 수만큼 용어와 번역 체계가 각각 다르고, 이에 대한 이해는 각 이론에 대한 이해와 병행되어야 한다.<sup>19)</sup> 본 연구는 기호학적 지시에 관한 연구로서 언어 철학적 지시는 개괄적 조망에 그친다. 프레게 이후 언어 철학에서 지시 개념이 외부 대상을 가리킨다는 외시와 그 외시 범주에 포함된 개체의 특성에 관한 내포를 넘나들면서 전개되었다. 언어 철학에서 한 단어의 외시적 의미는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들의 집합이며, 하나의 단언 내지는 술어적 언술의 외시는 그것과 일치하는 현실의 상태이다. 따라서 의미 표현은 그것이 명사로서 가리키는 대상들의 범주를 외시하고, 그런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개체들의 특성을 내포한다. 예를 들어 ‘흰색’이란 단어는 눈, 종이, 거품 등 모든 흰색 대상을 외시하고 흰색의 속성을 내포한다. 이에 해당하는 이원론적 모델은 denotation/meaning(Russell, 1905), referent/reference(Ogden & Richards, 1923), breath /depth(Peirce) 등 다양하다.<sup>20)</sup> 여기서 외시는 지시 현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언어 철학에서 지시 문

17) Frege, G., “On sense and reference”, In Zebeeh, Farhand, et al., ed., 『Readings in Semantics』, 재인용 Andrew Edgar & Peter Sedgwick, *Key Concepts in Cultural Theory*, 『문화이론사전』, 박명진 외 옮김, 2007, 391-392쪽.

18) 이것은 광의의 구분 방식으로 sense는 contents와, reference는 object, denotatum과 유사하다. 협의의 구분 방식에서는 reference가 제외된다. 원어(독일어)로는 Sinn과 Bedeutung이고(1892), 영어로는 M. Black에 의한 영어 번역에서 등장했다. 의미론적 논의의 틀은 지시 이론(theory of reference), 의의적 의미 이론(theory of sense), 그리고 화용론(pragmatic theory)으로 대분됨(Nöth, Winfried, *Handbook of Semiotics*, pp.92-93).

19) *Ibid.*, pp.92-100.

20) Eco, Umberto, *Il Segno*, 『기호: 개념과 역사』, 김광현 옮김, 2000, 134-136쪽.

제가 의미 표현 문제의 일부로 중시된 것에 비해 엘름슬레우의 기호 기능론에서는 지시 문제를 기호의 내적 구성 내에서의 의미작용의 문제로 파악하여 구조 문제의 일부로 다루어졌고 이것이 에코의 기호 생성론의 정초가 된다.

## II. 에코의 기호 생성론에서의 지시 이론

### 1. 기호 생성론에서의 지시 개념

에코의 기호 생성론은 엘름슬레우의 기호 기능론에 정초한 것이다. 따라서 기호 생성론에서의 지시 개념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호 기능론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호 기능론에서는 기호가 의미 표현과 의미 내용이라는 두 기능적 요소 사이의 상호적 관계가 제기하는 기능이라고 했다. 지시의 문제는 실제 외부 대상과의 직접적 관계의 문제로 설정되지 않고 기호 기능의 틀 내에서 다루어진다. 즉 지시의 문제는 기호의 내적 구성과 그 의미 작용, 그리고 기표와 기의 간 관계라는 기호 체계의 구조에 관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외부 대상은 기호 체계에서 배제되거나 개념으로서 기호에 포함된다. 이것은 기호학이 랑그 체계로 언어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 간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문법적 규칙 또는 코드를 기반으로 한 의미 체계에 관한 학문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기호학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는 ‘기호는 대상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개념의 한계, 즉 기호와 대상의 관계를 직접적 관계로 설정함에 따라 지시의 지시성과 의미가 한정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초석을 제공했다.

이러한 기호 기능론의 원리는 외시-내포 기호학과 메타 기호학으로 구체화되는데, 유의해야 할 것으로 내포적 의미를 형성하는 기표와 기의 간, 외시와 내포 간 관계에 규약 또는 코드가 구조 전체에 걸쳐 작동한

다는 것이다. 이 규약이라는 것은 언어적, 사회적 코드이고 여기에 수사학적 규약과 이데올로기적 규약이 관련되는 것으로, 통계학적으로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연상 작용에까지 관련되는 화용론적인 것이다. 이렇게 엘름슬레우에게는 기표와 기의, 외시와 내포 간을 연결하는 규칙들이 소쉬르의 이론에서 말하는 임의적 관계가 아니고 사회적, 화용론적 규약이다.<sup>21)</sup> 이 화용론적 규약은 의미 표현과 의미 내용 간 상호 전제성을 기반으로 구조 전체에 걸친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작용의 조정자 또는 메타기호 역할을 하게 된다.

예코의 기호 생성론은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말하기, 이미지, 몸짓 등 발화 과정에 관한 이론으로, 기표들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작업들과 기타 관련 작업들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생산 양식을 제시한다. 이 작업이라는 것은 표현 연속체의 조작, 내용 연속체의 조작, 기호와 사물 또는 세상의 상태 사이의 연결(상호관계 형성) 등 세 가지 유형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호학에서 기호의 유형 개념이 그런 작업들의 결과로 이해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는 그런 작업들의 복잡한 상호 관계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기호의 고전적 개념을 공허한 것으로 비판하면서 그 이론적 자리가 생성 작업의 상이한 유형들의 결과로서의 기호 기능의 개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예를 들어 상호 관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상, 지표, 상징으로 구분하는 기존 방식이 추상적 상호 관계들의 표현에 더 적합한 기호(상징), 직접적 상호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지표, 도상)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코는 새로운 기호 유형 구분 방식이 정의상 기호가 세상 및 대상과 맺는 직접적 관계인 지시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지시 과정에 기호학적 판단이 개입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지시 과정은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기호학적 판단에 의해

---

21) 앞의 책, 132-140쪽.

서 명제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지시 과정이 외시-내포 기호학적으로 이루어져 내포적 의미에 대한 내포적 지시가 이루어지지만 사실적 판단에 의해서 명제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외시적 의미에 대한 외시적 지시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외시적 의미론은 의미를 지향하는 기호학 원리로서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시적 지시와 내포적 지시는 구별되어야 한다.<sup>22)</sup> 이를 고려하여 기호 생성론에서는 지시의 유형 구분이 이원적 방식으로 제시한다. 첫째로 한 기호학적 실체가 서술하는 명제가 코드에 의해 부여되는 경우(기호학적 판단에 의한 명제)와 그렇지 않은 경우(사실적 판단에 의한 명제)로 구분하는 것이다. 전자의 지표적 명제는 유형으로서의 사물과 단어를 결합시키는 경우를 말하고([이 물건은 연필이다]), 후자의 지표적 명제는 구체적 사례에다 사실적 속성을 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이 연필은 검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구분 방식은 유형으로서의 기호학적 판단의 지표적 명제와 사례로서의 사실적 판단의 지표적 명제 간에 관계인 유형-사례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수직적 관계를 말한다.<sup>23)</sup> 이 유형-사례 관계는 불변한 것이 아니고 사실적 판단에 의해 최초로 발화될 때에 사실적 지표적 명제이던 것이 사회적 집단에 의해 진실로 받아들여질 때에는 서서히 기호학적 판단으로 변한다. 이렇게 기호 생성론에서는 지시의 특성이 지시의 유형과 상호 관계에 의해 이원적 방식으로 결정된다.

## 2. 지시 대상과의 관계에 관한 검토

예코는 『기호: 개념과 역사』에서 퍼스가 기호와 사물 간 관계를 도상, 지시, 상징으로 구분한 것을 비판적으로 기술하면서 그것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구분 방식이긴 하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을 가지고

22) 외연적 의미론은 거짓말과 웃음의 문제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코드 이론에 도움을 줄 수 없다.(같은 책 106쪽)

23) 같은 책, 247-251쪽.

있다고 하였다. 에코의 지적의 요지는 그러한 세 가지 구분 방식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생성과 존재 양식을 결정하는 규약에 근거하여 그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코의 비판적 기술을 기호학 원리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에코는 먼저 지시 기호가 대상을 가리킨다는 관계 설정이 불분명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지시 대명사는 문맥적 지표로 기능하고, 인칭 대명사는 언술의 주어, 언술 행위의 주체를 지시하는 것으로 대상과 무관하다. 이것은 비언어 지시 기호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방향 기호(손가락 또는 손가락과 같은 역할을 하는 단어(/je/, /tu/, /ça/ 등))는 집중을 유발하는 메타언어적 기호이고 그것에 따라 지시 현상이 유발되는 의미 행위는 기호 외적 현상인 지각적 행위로서 대상의 지시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에코는 사진을 일반인은 도상 기호로 구분하지만 퍼스는 지시 기호로 구분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퍼스의 지시 대상과의 관계 구분이 불분명한 사례라고 했다. 즉 지시 기호들은 위에서 말한 광범위한 지시 대상을 가리키기 위한 장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에코는 도상성 스펙트럼의 광범위함을 언급하면서 도상성 비율 등 구체적 도상 문제는 의미 작용으로 지시하는 모든 대상들이 기호로 변한다는 기호화 작용의 원리에 기초해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sup>24)</sup> 기호화 작용이라는 것은 외부 세계의 지시 대상이 기호작용에 편입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지시 문제는 물리적 지시 대상과 기호 간 직접적 관계가 아니라 지시 대상에 대한 개념 또는 지각적 투영이 기호화되고 이 기호가 의미작용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즉 대상의 도상성을 지시하는 기호학적 원리는 기호의 내재적 문제로 기호 기능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 때 지각적 투영이라는 것은 제시, 사물의 일부분을 사용하기, 전이 등을 말하는 것으로, 도상 기호가 생성되는 원리가 통상 재현에 의해 나타나는 유사성, 근접성, 유추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

---

24) 같은 책, 84-89쪽.



는 것으로 통용되는 것을 이 지각적 투영 개념에 근거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했다.<sup>25)</sup>

세 번째로 예코는 도상, 지표, 상징의 구분 기준이 불분명한 가운데 그것들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이것들이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기호 기능 관계에 기초한 규약적 기호이기 때문이고 이것은 문화권별로 달라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규약적 기호의 예로서 예코는 제시 기호(signes ostentifs), 즉 제시하는 사물의 기표의 일부 또는 전체가 대상을 나타내는 기호를 들었다. 예를 들어 담배를 사려고 똑같은 담배를 제시할 경우 그 담배에 대한 인식에 기호화 과정이 개입되어 그 담배는 제시 기호로 작용한다. 이 경우 제시 기호는 지시 대상이라는 매개 변수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지시를 위해 사물과 동일한 것으로 선택되거나 임시적으로 구성되는 규약적 기호이다. 이 개념을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유사성 또는 인접성을 통하여 형성되는 도상기호가 문화권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sup>26)</sup>

예코는 이러한 비판에 근거하여 도상 기호를 만들 때 충족시켜야 하는 세 가지 문화권별 규약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① 문화가 실제 사물을 식별하기 위한 몇 가지 인식 자질의 규약적 정의, ② 그 사물을 재현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변별적 표현 자질의 규약적 정의, ③ 지각 작용에서 이 두 가지가 일치되는 방식으로 지각되게 하는 재현 양식 등 세 가지 조건이다. 예를 들어 고딕 건축 양식의 삼차원 형상을 이차원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양식을 대표하는 변별적 그림 자질을 선정하고 또 현대적 원근법 규약이 아닌 당시의 작도법이 적용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

---

25) 엘름슬레우는 자신의 언리학 모델에서 소쉬르의 기표와 기의 간 임의적 관계를 언어의 내용면에 대한 의미소와 의소의 이중 분절에서 말하는 의미성분을 통한 기능적, 구조적 관계로 발전시켰다. 이 원리가 예코의 기호생성론의 일부가 된다.(같은 책, 93-94쪽.)

26) 예코는 규약적 기호의 의미가 문화권별로 달라지는 사례로서 식당에서 웨이터에게 포도주 빈 병을 보여 주는 행위의 의미가 문화권에 따라 /한 병 더 줘요/가 될 수도 있고 /한 잔하세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들었다.(같은 책, 89-91쪽)

이다. 이러한 예는 그림을 통한 표현 외에도 몸동작, 화법 등 다양하다.

에코의 지시 대상과의 관계에 관한 이론은 기호의 문제에서 대상의 지시가 배제된다는 소쉬르 기호학, 그리고 기호는 의미 표현과 의미 내용이라는 두 기능적 요소 사이의 상호적 관계가 제기하는 기능이라는 옐름슬레우의 기호 기능론이 에코 자신의 기호 생성론과 접목된 것이다. 특히 옐름슬레우의 기호 기능론에 나오는 주요 원리들, 즉 연속체가 이미 의미와 보편적 원리를 간직한다고 한 것, 연속체로부터 질료, 기표와 기의, 의미 표현과 의미 내용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의미 구성 과정에 일정한 경향 내지 법칙이 적용된다고 한 것, 현상학적 및 지각적 시니피에가 관련된다고 한 것 등은 에코의 규약적 기호 개념과 지각적 투영에 의한 도상 기호 생성 원리의 근간이 되었다.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지시의 문제에는 이러한 폭넓은 사고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 이론에서는 상세한 원리 규명을 방법론적 제약 때문에 향후 과제로 남겨 두고 있는데 다음에 나오는 기호학적 지표적 판단에 의한 지시 이론에서 그것에 좀 더 접근한다.

### 3. 기호학적 지표적 판단에 의한 지시 이론

지시 행위에 대한 종래의 이론은 발화체 또는 상응하는 명제를 지표적 장치(지적체라고도 불리며, 가리킨 손가락, /이것/ 같은 언어적 지표 등)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과 접촉시킨다는 이론이었다. 에코는 이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sup>27)</sup> 지표적 판단에 의한 지시 과정을 의식 내에서 일어나는 기호학적 의미과정으로 재구성한 자신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의 핵심은 ‘지각물의 기호학적 정의’와 ‘메타언어적 판단 행위’이다. 먼저 지각물의 기호학적 정의란 언어 행위로서의 발화체(/이것은 고양이

27) 전통적 이론에서는 지적체의 의미가 물리적으로 함께 연결된 대상에 의해 주어진다 는 사실을 특징으로 하는데 에코는 그 입장의 오류를 증명하였다.(Eco, Umberto, *A Theory of Semiotics*, 『일반 기호학 이론』, 김운찬 옮김, 2009, 263쪽)

이다)가 경험적 지각물(고양이)을 가리킬 때 양자가 비교될 수 있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코드에 의한 지각물을 언어적 코드에 의한 기호학적 단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지각물(고양이)에다 문화적 도식(관념 또는 개념)을 적용하여 문화적 단위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양자에 기호학적 대상이라는 공통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 이제 단어(/고양이/)의 의미적 속성들과 지각물(고양이)이 가진 의미적 속성들을 비교할 수 있게 되고, 그 중 그 중 일치하는 것들만을 찾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일치하는 의미적 속성을 선택한 다음에는 두 가지 메타언어적 행위와 표현 행위가 수행된다. 전자는 선택된 속성에 대한 메타언어적 판단 행위와 발화에 대한 메타언어적 판단 행위를 말하는데, 그것은 각각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다.<sup>28)</sup> 선택된 속성에 대한 메타언어적 판단 행위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개인적 선택에 대한 사회적 의미 법칙(의미적 일관성 등)에 의한 판단 행위를 말한다.<sup>29)</sup> 예를 들어 선택된 속성이 ‘귀여움’인 경우 사회적 메타언어적 판단은 긍정일 것이고 선택된 속성이 ‘반야생적 공포’인 경우 그 판단은 부정일 수 있다. 다음으로 발화에 대한 메타언어적 판단 행위라는 것은 발화체에 대한 사회적 의미 법칙에 의한 판단을 말한다. 예를 들어 /귀여워/라는 발화에 대한 메타언어적 판단은 통상적 상황에서는 긍정일 것이고 포우 소설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극장에서는 부정일 것이다.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지시적 표현은 이러한 일련의 메타언어적 판단 행위의 결과이다. 긍정적 표현(/이다/)이 발화되는 경우에는 [양 기호학적 단위가 의미적 속성들에서 일치한다] 또는 [지각물이 언어의 의미적 속성들의 일부를 소유한다]를 의미하는

28) 메타언어는 일반적으로 언어적 지시물을 대상 언어로 하는 언어를 말함(사전 등). 예코는 메타언어적 행동에 대해 설명을 붙이길 ‘상이한 코드에 속하는 기표들을 대비하고 동등하게 만듦으로써 언어적 구성물과 기호화한 지각적 구성물을 연결시키는 행위’라고 했다.(같은 책, 271-272쪽)

29) 의미 법칙이라는 것은 의미론적 이해 규칙. 여기에서는 사회가 공유하는 그러한 것을 말한다.(같은 책, 106쪽)

것이다. 이 때 필요한 경우 양 메타언어적 판단 과정에서 선택된 의미적 속성을 변경하거나 메타언어를 변경하는 변증법적 상호 작용이 수행될 수도 있다. 최종 결과의 언어 표현(/이다/, /고양이!/)은 비언어적 표현(가리키는 손가락질 또는 몸짓 등)과 함께 나타날 수 있다.

एको는 자신의 이 기호학적 지표적 지시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몇 가지 관련 이론을 적용하였다. 먼저 앞에서 보았듯이 자신의 문화 코드 이론에 나오는 문화적 단위 개념을 적용하였다. 즉 비교를 위해서 경험적 지각 대상인 지각물이 문화적 단위가 되고<sup>30)</sup> 그것의 문화적 의미소가 언어적 의미소와 비교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 비교 대상이 되는 지각체는 지각물-사례(고양이-사례)가 아니고 지각물-유형(고양이-유형)인데 이것은 기호학이 랑그 체계에 관한 학문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적용한 이론으로 중요한 것은 퍼스(C. Peirce)의 기호 재현론이다. 이것은 과거에 경험한 세미오시스에서부터 관념이 생기면 그것은 논리적 해석소로, 당시의 현상은 기호로 잠재해 있다가 해당 현상을 만나면 기호의 재현 기능에 의해 당시의 느낌이나 개념을 의식에서 재현할 뿐 아니라 논리적 해석소가 기호작용에 편입된다는 것이다.<sup>31)</sup> 앞의 예에서는 단어(/고양이/)와 지각물(고양이)에 대한 관념인 의미적 속성들이 기호로서 재현되어 서로 일치하는 것을 선택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एको의 기호학적 판단에 의한 지표적 명제에 의한 지시적 원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지표적 판단에는 지각 대상에 대한 언어적 의미 부여와 그 언어적 의미에 대한 기호학적 선택과 판단이 따른다. 이 기호학적 선택과 판단은 언어학적 랑그 체계 내에서의 외사-내포 기호구조와 메타기호 간 변증법적 상호작용이다. 넓은 구도로 본다면 이 지시

30) 문화적 단위란 문화권별로 실재성과 관계없이 통용되는 기호의 구분 단위를 말한다. (같은 책, 110쪽)

31) 우리는 어떤 느낌이나 이미지, 개념 또는 기호로 사용되는 다른 재현을 의식에 떠올린다.(CP, 5.283). 모든 이전의 생각은 뒤의 생각에 대한 무엇인가의 기호이다.(CP, 5.284) (이상 같은 책 재인용, 267쪽)

이론은 의미 작용이 가진 보편성의 용광로에 지각물의 인지 과정이 녹아 들어간 것이다. 즉 이질적인 지각물과 언어 기호를 공히 기호학적 동질성이라는 보편성의 용광로에 넣은 다음 그들의 의미적 속성들을 비교, 판단하고, 그 선택된 속성을 사회적, 언어적 근원의 기호학적 메타기호와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에 넣은 후 최종 결과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 일련의 과정은 외시-내포 층위로 구성된 의미구조를 둘러싼 행위의 연속이고 그 최상 레벨에 메타기호 층위가 있다.<sup>32)</sup> 이 메타기호 층위에서는 언어와 기호를 기반으로 한 메타기호적 행위가 변증법적으로 일어난다. 즉 위에서 언급된 두 개의 메타언어적 행위들은 선택된 속성, 발화체와 해당 코드 간 변증법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이다. 상호작용이 신속히 완료되는 경우도 있지만(위 경우에서와 같이 선택 행위가 곧 이루어지는 경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지각물의 속성이나 발화체를 바꾸거나 또는 해당 코드를 바꾸면서 의미 규칙, 상황, 주체의 의도에 부합하는 최적의 것을 찾는 변증법적 상호작용이 이어지게 된다. 변증법적 메타기호적 행위는 이러한 변증법적 메타언어적 행위의 기호학적 확장이다.

### III. 지각적 확장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고찰

#### 1. 에코의 지시 이론에 대한 기호 기능론적 고찰

엘름슬레우의 기호 기능론에서 질료-표현·내용-형식·실질의 위계적 분절에 의한 형식적 모델은 랑그 체계이며, 이것은 코드 이론, 커뮤니케이션 (행위) 이론 등 랑그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

32) 메타기호는 기호 체계의 의미론적 체계성을 위한 상위 기호로, 체계에 모순이 발생 시 하위 코드들에 대한 비판, 판단 기능을 수행하고 코드와 메시지의 변증법에 의해 기호 체계에 변화를 일으킴.(Eco, Umberto, *La Struttura Assente*, 『구조의 부재』, 김광현 옮김, 1998, 202쪽)

다. 에코의 기호 생성론에 나오는 지시 이론은 그러한 다양한 활용 방식 중 하나이다. 이 때 형식적 모델이 지시 이론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위계적 분절 체계가 재구성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곧 표현면을 발화체의 위계구조로, 내용면을 명제의 위계구조로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기호 기능론의 요건인 기능소들 간 상호 관계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sup>33)</sup>

앞에서 언급된 에코의 지시 이론을 구성하는 여러 세부 이론들은 곧 이러한 내용면과 형식면의 재구성 방식에 대한 이론들이다. 즉 기호학적 판단에 의한 지표적 명제와 사실적 판단에 의한 지표적 명제는 내용면을 구성하는 명제를 위계적으로 세분하는 한 방식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지표적 명제에 대한 언어적 표현은 형식면을 구성하는 발화체를 위계적으로 세분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것은 손짓, 표정 등을 수반할 수 있다. 그리고 선택된 속성들에 대한 메타언어적 규약에 의한 판단은 기능소들 간 상호 관계를 고려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기호 기능론에서는 외부 세계 또는 대상과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고려되지 않거나 내재적 구조에 개념으로 편입된다. 에코의 지시 이론에서는 이것에 지각물이라는 대상에 문화적 도식을 적용함으로써 기호학적 단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 2. 지각적 확장 방법론에 대한 검토

엘름슬레우의 기호 기능론에 바탕을 둔 외시-내포 기호학, 메타 기호학은 포괄적인 기호작용 원리를 제공한다. 그 원리들은 인간의 이성적 사고 능력 외에도 연상, 기억, 관습 등 지각적 능력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그러나 그 원리들은 인간 의식 활동 범위 내에서 전개되는 언어적 기호 활동에 관한 것으로, 언어 영역을 벗어난 현상학적, 심리학적 지

---

33) 같은 책 도표 6, 도표 31 참조.

각인지에 대한 원리에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에코의 기호 생성론은 엘름슬레우의 기호 기능론 기호작용의 범위가 지각 영역에까지 확장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하였다. 이 원리는 표현과 논리의 분절 방식이 언어 기호의 틀을 벗어나 지각과 비언어적 분절까지 포함할 수 있다. 이로써 지시 문제에 있어서 언어학에서 대상과의 직접적인 언어적 관계에 국한해서 이해되던 것을 지각적 원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된 ‘지각물의 기호학적 정의’와 ‘메타언어적 판단 행위’ 원리를 통하여 가능해진 것이다.

### 3. 나오면서 – 지각적 확장을 위한 과제

본 연구에서는 기호학의 내재적 특성으로부터 얻어지는 기호 기능론적 특성을 중심으로 기호학적 지시 문제의 지각론적 확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범위가 언어적 지시에 국한하고 또 지각적 확장 문제를 언어적 관점에 국한하여 바라본다는 한계를 지니는 바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들이 도출된다. 첫째 대상 자체의 지각인지적 요소와 기호적 요소 간 접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퍼스의 기호 재현론이 말하듯이 지각인지적 요소가 기호작용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둘째 지시성과 의미성 간 상관관계의 원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호가 내재적 기호 체계 내에서 생성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양자 간 상호작용으로 의미성과 현실 지시성을 갖춘다면 현실 세계에 대한 이해 도구로서의 기호학의 목적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건축, 도시 등 지각성 요소가 많은 분야에서 지각기호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건축 공간의 경우 지시하는 것이 없다면 그 건축은 의미가 없거나 죽은 것이 될 것이고, 의미가 없다면 지시하는 것이 없어진다.<sup>34)</sup>

---

34) von Meiss, Pierre, *De La Forme Au Lieu*, 『형태로부터 장소로』, 정인하 옮김, 2002, 27-40쪽.

기호의 지시성과 의미성은 기호 작용에서 상호 불가분한 존재론적 구성 요소로 끊임없는 상호 작용의 관계 내에 놓여 있다. 기호 작용의 지각적 확장은 그러한 상호 작용에서 얻어지는 의미성과 현실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성도, 『기호, 리듬, 우주』, 인간사랑, 2007.
- 박인철, 『파리학파의 기호학』, 민음사, 2006.
- 황영삼, 「에코, 스칼비니, 쟁크스의 비교를 통한 건축기호모델 연구」, 『기호학연구』 38, 한국기호학회, 2014.
- \_\_\_\_\_, 「기호의 주체에 관한 고찰」, 『기호학연구』 43, 한국기호학회, 2015.
- Eco, Umberto, *La Struttura Assente* 1968, 『구조의 부재』, 김광현 옮김, 열린책들, 1998.
- \_\_\_\_\_, Eco, Umberto, *Il Segno*, 1973, 『기호: 개념과 역사』, 김광현 옮김, 열린책들, 2000.
- \_\_\_\_\_, Eco, Umberto, *A Theory of Semiotics*, 1976, 『일반 기호학 이론』, 김운찬 옮김, 열린책들, 2009.
- \_\_\_\_\_, Eco, Umberto, *Semiotica e Filosofia del Linguaggio*, 1984, 『기호학과 언어 철학』, 김성도 옮김, 열린책들, 2009.
- Frege, Gottlob, “On Sense and Reference”, In Zebeeh, Farhand et al. ed., 『Readings and in Semantics』, Urbana: Univ. of Illinois Press, 재인용 Andrew Edgar & Peter Sedgwick, 『Key Concepts in Cultural Theory』, Routledge Ltd, 『문화이론사전』, 박명진 외 옮김, 한나래, 2007.
- Nöth, Winfried, *Handbook of Semiotic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
- Ricoeur, Paul, *Interpretation Theory: Discourse and the Surplus of Meaning*, 1976, 『해석이론』, 김윤성 외 옮김, 서광사, 1994.
- von Meiss, Pierre, *De La Forme Au Lieu*, Press Polytechniques et universitaires romandes, 1993, 『형태로부터 장소로』, 정인하 옮김, 2002.

# Perceptual Extension of Semiotic Reference

Hwang, Young-Sam

The issue of reference is one of the main issues through semiotics and linguistic philosophy. In this paper the following questions are raised: what is reference, what is the one referred to, and how they can be extended perceptually. To access these questions two preliminary semiotic theories are selected, and studied in the points above. That ultimate purpose of the work is to comprehend the messages coming to us from many ways.

The two semiotic theories selected are the sign function theory by Hjelmslev and the sign production theory by U. Eco. These are persistently on the same structural ground in relationships between form and contents. Eco's theory has been found providing a methodology for linking a sign and a perceptual concept as a referent, by employing the way for merging the latter with the first by converting the latter to semiotic object and putting the object to semiotic process. Future works for developing semiotic reference theory have been proposed.

key word : Reference theory, Sign production theory, Sign and percept, Architectural semiotics, Urban semiotics

투고일 : 2016. 11. 25. / 심사일 : 2016. 11. 27. / 심사완료일 : 2016. 12. 10.